



김범일 대구시장이 15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155억원을 감액한 2007년 대구시 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다.

대구 3조8천685억 · 경북 3조9천85억

내년도 예산 확정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훈)는 15일 제15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07년도 대구시세입·세출 수정 예산 3조8천685억원과 교육비특별회 계 1조5천539억9천600여만 원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대구시 수정예산은 당초 시가 편성한 3조8천840억원에서 155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수정내역에는 지난 14일 새벽 예결위가 의결한 계수조정안에서 전액삭감됐던 '법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85억원 가운데 30억 원이 반영됐으며 이와 연계해 민자도로(법안로) 사업분석연구용역비 5천만원이 신규, 증액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구시의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사업자 지정 을 위한 의회보고'가 이뤄져 4차순환

도로 건설을 위한 의회보고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충환(북구4) 부의장은 이날 의회 보고에 대한 토론에서 "유료도로법에 의해 개설된 국우터널은 예측교통량 보다 통행량이 많아졌고, 민간투자촉진법에 따른 정부고시사업으로 건설된 법안로는 예측교통량보다 통행량이 적은 것은 아무리 전문기관의뢰로 수요예측을 했더라도 관리주체인 대구시가 충분한 검토 및 대책을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남긴다"며 향후 상인~범물간 도로건설에 따른 대구시의 각별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또 "대구시의 4차 순환도로건설계획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로 정해졌다가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10년으로, 지난해에는 다시 2015년으로 바뀌는 등 무계획적으로 건설기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를 폐회하고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올해 결산추

경 심사를 위한 제157회 임시회를 연다.

한편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15일 제21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07년도 경북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과 도교육청특별회계 및 17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는 당초 경북도가 편성한 총예산에서 202억4천720만원을 감액한 3조9천85억4천300만원을 확정했다. 도교육청 예산은 총2조1천694억8천555만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도의회는 이날 도 행정기구 설치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등 17개 조례안을 의결하는 한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006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시작한다.

문정화 · 이후혁기자
moonjh · hugh@idaegu.com